

## 3기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 지정

음압격리병상 설치 의무화  
병문안객 통제 시스템 갖춰야

## 간호실습교육 역량에 가점 부여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이 지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42개 기관은 지난 5개월여에 걸쳐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회의의 의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절대평가에서는 시설, 인력, 장비, 환자구성비율 등 필수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했으며, 이 기준은 하나라도 미충족 시 자동 탈락된다.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수 대비 의료인력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했다.

3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은 지난 2기에 비해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강화됐다.

음압격리병상 설치 의무화했으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가지

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음압 격리병상을 500병상 당 1개 설치해야 한다.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경우 가점 3점을 부여했다.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가 21%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환자가 16% 이하가 되도록 환자구성비율 기준을 강화했다.

의료서비스 질 평가 기준을 신설해 심장, 뇌, 주요 암, 수술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 사용, 진료량 등 5개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했다.

연간 3개 이상의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간호실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간호기술 역량을 갖춘 경우 가점 2점을 적용했다.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정보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 내 거점 의료

기관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는 총 51개 기관이 신청해 최종 42개 기관이 지정됐다. 2기에 지정받았던 43개 기관 중 41개 기관이 재지정됐으며, 울산대병원이 탈락했고, 이대 목동병원이 지정 보류됐다. 철곡경북대병원이 새로 지정됐다.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 명단은 (표) 참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진 단체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도입됐다. 매 3년마다 지정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수가 중증가산율 30%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 부합하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현행 진료권역의 타당성, 평가대상기관 간 진료역량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재설정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혜진·정규숙 기자

##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둔다

## 윤종필 국회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행하는 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했으며(제16조제1항), 이때 전담공무원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제16조제5항).

또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4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해 수립하도록 했다(제7조제5항).

윤종필 국회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고령화의 영향으로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공무원을 둔다”는 의견이 대두돼 왔다”면서 “지난해 열린 토론회에서 방문건강관리 업무의 연속



성과 질적 관리를 위해 비정규직 인력의 고용안정과 정규직 채용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윤종필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업이나 읍면동 복지허브 사업 수행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방문간호사 등의 사기진작은 물론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취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김용익 전 국회의원이 지난 12월 29일자로 임명됐다. 임기는 3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정을 거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김용익 이사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65세)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서울대에서 보건학 석사학위 및 예방의학 박사학위, 영국리즈대에서 보건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런던대에서 보건정책학 박사후과정을 마쳤다.

김용익 이사장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제19대 국회의원,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황조근정훈장,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1월 2일 열린 취임식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의 가장 큰 임무는 문재인 케어 정책과 올해 7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성공시키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케어는 급여의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의 결정 등



에서 거의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를 필요로 하며,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여와 수가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더 빨리 보고 준비해야 할 것은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심각한 위협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함께 미래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은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자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견인자 역할을 해왔다”면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진료권역	지정기관명
서울권(13)	강북삼성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병원, 고려대 인암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경기서북부권(4)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경기남부권(4)	고려대 안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강원권(1)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	충북대병원
충남권(3)	단국대병원, 충남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전북권(2)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권(3)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경북권(5)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철곡경북대병원
경남권(6)	인제대 부산백병원, 경상대병원, 고신대목동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추진

중소기업 노동자의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3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맞벌이 노동자의 보육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며, 접근성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다.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 직접 설치·운영하는 기존 직장어린이집 모델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직장어린이집이다.

고용노동부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소 선정을 위한 지역별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율상 반기에 중소기업 노동자 밀집, 주

거지 인근 이용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저소득 맞벌이 노동자 자녀를 최우선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입소 우선순위를 정비하며, 사업주나 노동자가 별도로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고 국가와 해당 지자체가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은 2017년 11월 기준 총 1051개로 전체 어린이집의 약 2.6%에 불과하다. 이 중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은 119개 밖에 없다. 주혜진 기자 hjoo@

## 국민 10명 중 7명 장기·인체조직기증 의향 있어

국민 10명 중 7명은 장기·인체조직기증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장기·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2017 생명나눔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장기기증 인지도는 2016년 97.7%보다 0.4%p 상승한 98.1%,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2016년 37%보다 8.5%p 상승한 45.5%로 나타났다. 인체조직기증은 사후 뼈, 피부, 인대, 건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것이다.

장기·인체조직기증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7%가 기증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는 2016년 대비 25.7%p 상승한 것이다.

기증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는 ‘인체훼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46.1%), ‘막연히 두려워서’(26.1%), ‘주변에서 실 사례를 접한 적이 없어서’(10.9%) 순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 생명나눔 주간(9월 둘째 주)을 신설하고, 생명나눔 기념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등 기증자 예우와 추모사업을 통해 기증자 존중문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지도층 대상 생명나눔 릴레이 서약, 지속적 이슈메이킹을 통한 기증 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기증희망등록률을 높일 예정이다. 최수정 기자 sjchoi@

##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신고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간호사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간호사 인권침해 행위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취합된 결과를 토대로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니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취합된 내용은 통계목적외로만 이용됩니다.

##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신고 참여방법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 접속  
→ 실태조사 및 신고 [팝업창] 클릭

\* 대한간호협회에서 회원에게 발송한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에서 [바로가기] 클릭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06388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호사신문 (02) 2260-2571 FAX (02) 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nursenews.co.kr



## 간호학 전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합격기원 응원 현장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

